

이야기 8 : 선한 사마리아인

주제말씀
[누가복음 10:37]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되물었어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의 말이 맞다 그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자 율법학자는 자신을 높여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떠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지.

그 사람은 많이 다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단다. 그 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

그 발자국 소리의 주인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지.

하지만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못 본체하며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잠시 후, 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레위사람이었다.

레위 사람도 쓰러져 있는 남자를 보았지만 못 본 체하고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쓰러져 있는 남자는 점점 힘이 빠져서. 그런데 조금 있으니 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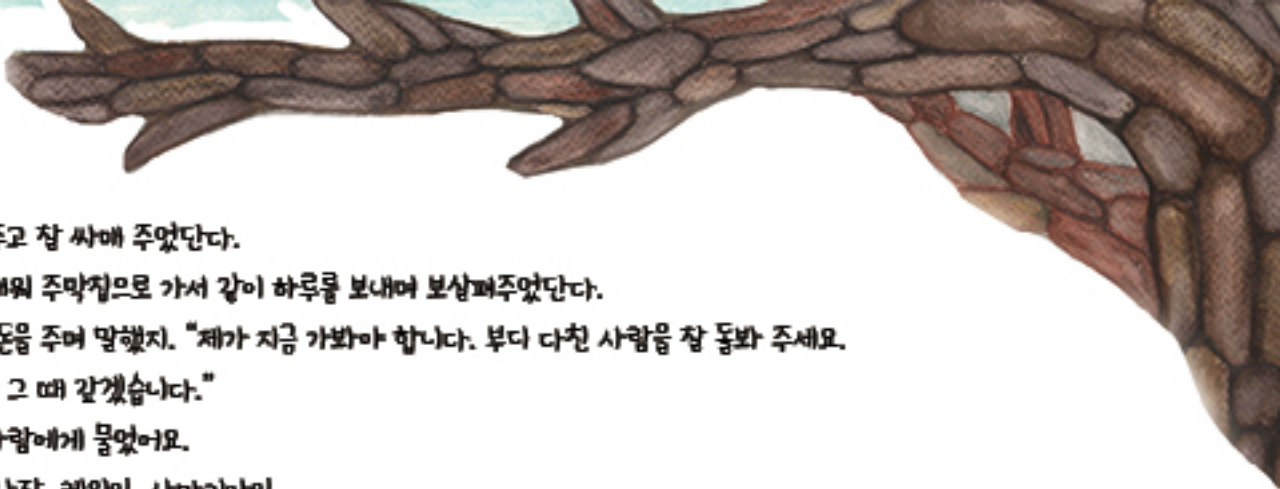
나귀를 타고 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

쓰러진 남자는 기운이 빠져서 거의 포기할 뻔했단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에서 내려 강도 당한 남자에게 다가간거야.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 주었어.





또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에 약을 발라 주고 잘 싸매 주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을 나귀에 태워 주막집으로 가서 같이 하루를 보내며 보살펴주었다.

다음날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말했다. “제가 지금 가봐야 합니다. 부디 다친 사람을 잘 돌봐 주세요.

제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돈이 더 들면 그 때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긴 이야기를 마치고, 질문했던 사람에게 물었어요.

“자, 이야기에 나온 세 사람이 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어요.

다친 사람을 도와주었던 착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다. 너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람을 배품어 살아라!”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외우세요 (누가복음 10:37)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활동 1.

강도 만난 사람의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것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의 그림을 색칠해 주세요.

